‘보해소주’ 전국 애주가 취향 잡았다

출시 1년 만에 200만병 판매
역대 보해 신제품 중 최고 판매량
제품이 가진 맛·특성으로 승부
전국서 입점 문의…시장 안착

보해가 개발한 솔트레시피를 전면에 내세우며 새로운 소주의 탄생을 알린 ‘보해소주’가 전국 애주가들의 취향을 사로잡았다.

보해양조는 출시 1주년을 맞은 ‘보해소주’가 역대 신제품 중 가장 높은 판매량을 보이면서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보해소주’ 광고 포스터. /보해양조 제공

지난해 7월 출시한 보해소주는 소주의 맛과 제품의 특성 만으로 인정받는 소주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보해양조가 승부수를 건 제품이다.

기존의 소주가 인공 첨가물이나 당으로 맛을 냈다면 보해소주는 자연에서 얻은 히말라야 핑크 솔트, 안데스 레이크 솔트, 신안 토판염 등 세계 3대 소금을 넣어 소주의 쓴맛과 알코올 향을 대폭 줄였다. 또한 기존 소주 보다 용량을 15ml 늘린 375ml 용량으로 한잔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출시 첫 달 약 1만 병대였던 판매량은 5개월 만에 12만 병대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출시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는 출시 첫 달보다 20배 넘게 판매되며 역대 보해양조 신제품 중에서 최대치를 넘어섰다.

보해는 새롭게 만든 보해소주를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먼저 입점시켰다. 식당과 주점의 한정된 냉장고에 들어가는 것보다 가정용 시장을 우선 겨냥한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가정용 시장이 대폭 확대되면서 집에서 보해소주를 경험한 소비자들이 식당과 주점에서까지 찾다보니 결과적으로 보해소주가 시장에 안착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됐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보해소주가 광주전남에서만이 아닌 전국에서 고른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기존 보해의 신제품들은 주로 광주전남 지역에서 판매됐으나 보해소주의 경우에는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지속적으로 판매되는 중이다. 또한 주요 프렌차이즈 식당 등에서 보해소주 제품 입점문의를 하는 등 제품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해양조 관계자는 전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코로나 영향으로 식당 등 업소 판매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보해소주 판매가 상승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셰프 식당 및 노포 맛집 업소 중심으로 입점 문의가 지속되고 있어 보해소주 판매는 더욱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기아, 레이 EV 활용 PBV 아이디어 공모전

10월 16일까지…총 20팀 선정

기아가 ‘레이 EV를 활용한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 Purpose Built Vehicle)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오는 10월 16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은 차량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 새로운 맞춤형 PBV를 개발하고자 마련됐다.

기아는 참여 목적과 대상에 따라 공모 부문을 크게 ▲비즈니스 ▲라이프스타일 ▲커스터마이징 등 3개로 나누어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비즈니스 및 라이프스타일 부문은 다양한 차량 경험을 토대로 내게 필요한 기능을 갖춘 나만의 레이 EV는 어떤 모습일지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면 된다. 커스터마이징 부문의 경우 영상, 입체 도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레이 EV를 개조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 된다.

기아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독창성,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 등을 기준으로 오는 10월 중순 예선 심사를 거쳐 10월 31일 수상작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시상은 총 20팀으로, 기아는 부문별로 대상 1팀(1,000만 원), 최우수상 1팀(300만 원), 우수상 5팀(100만 원)을 선정한다. 비즈니스 및 커스터마이징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팀은 상금 지급 외에도 사업비 제공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되며, 향후 아이디어의 상품성 및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 출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중진공-AI산업융합사업단, 혁신성장 업무협약

인공지능 거점 자리매김 기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광주 AI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유망 중소기업 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지역혁신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식은 이날 광주 AI창업캠프에서 박홍주 중진공 광주지역본부장, 임차식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양 기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산업융합 생태계 조성을 통해 광주가 국가 인공지능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업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관내 인공지능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상호 추천 ▲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단계별 연계지원 협력 ▲인공지능 미래 전문인력 양성 ▲기관 간 연계지원 성과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이다.

박홍주 중진공 광주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신산업 분야인 AI 지원 확대를 통해 광주지역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동시에 우수한 AI 인력이 지역에 들어와 청년들의 꿈과 희망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광주 AI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혁신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임차식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인공지능 기업의 성장단계별 창업 및 인력 지원 등을 통해 광주 AI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진공과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홍승현 기자

광주국세청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현장 방문

목포세무서 운영현황 점검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은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20일 목포세무서를 방문 신고창구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

윤 청장은 이날 신고도움 창구 및 자기작성 창구 등을 둘러보며, 방문한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살피고, 창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윤 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신고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방문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연수 기자

한전KDN-전남자치경찰, 사회안전망 구축 맞손

한전KDN 감사실은 지난 19일 무안에 위치한 전남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남자치경찰위원회, 한전KPS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성학 한전KDN 상임감사와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장, 강동신 한전KPS 상임감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소개와 인사말, 협약 서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관한 협력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으로 협약에 참여한 각 기관은 협력을 통해 범죄예방을 포함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사회적 책무 이행에 노력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첫걸음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큰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동신 한전KPS 상임감사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성학 한전KDN 상임감사는 “세 기관이 함께한다면, 더욱 체계적으로 도민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우수 교류사례로 타 기관에 귀감이 되고 각 기관 모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